



## 겨울이 좋은 이유는 따뜻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린 겨울 감싸주는 솜 이불처럼, 마른 가지 덮어주는 함박눈처럼  
 올 한 해도 수고했다는 따뜻한 포옹과 격려를 나누는 사람  
 곤궁한 이들을 돌아보며 세상에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설렘 가득한 눈빛을 지닌 사람  
 당신이 있기에 이 겨울이 따뜻합니다.  
 당신 덕분에 2016년이 참 행복했습니다.

**SeAH**

신뢰를 부르는 감사와 겸허  
 자만심을 경계하고 변화를 겸허히 수용하며  
 겸손한 자세로 질적 성장에 주력하는 세아





신뢰를 부르는 감사와 겸허

웃음을 어미며 바쁘게 걷는 사람들 사이로, 2016년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 한 해 참 고마웠다는 인사, 연말의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격려, 내년엔 함께 더 행복하자는 아름다운 약속과 기도가 종소리와 함께 번집니다. 차가워진 손끝에 호~입김을 불어넣듯, 추위를 밀어내고 가슴에 온기를 채워주는 말.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들 숨결이 따뜻합니다.

발행일 2016년 12월 28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윌호 02-733-0790 표지 이기세 작가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SeAH Insight | 04 | 테마 메시지 |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
|              | 06 | 테마 인터뷰 |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         |
|              | 10 | 테마 칼럼  | 글로벌 기업을 통해 배우는 감사와 겸허의 힘 |

SeAH Inside

|    |         |                                                                                  |
|----|---------|----------------------------------------------------------------------------------|
| 14 | 스페셜 칼럼  | 2016 세아 10대 뉴스                                                                   |
| 18 | 세아는 지금  | 세아제강, 북미 OCTG 업체 2곳 자산인수<br>세아이운형문화재단 크리스마스 음악회<br>세아 ESAB, 온라인 직거래시스템 예샵다이렉트 론칭 |
| 26 | 세아 히스토리 | 감사와 겸허의 기업 정신                                                                    |
| 28 | 글로벌 리포트 | India SeAH Precision Metal Plant Operation Team                                  |
| 32 | 팀 플레이   | 세아세스틸 군산공장 Hot Scarfing TF팀                                                      |
| 36 | 동고동락    | 인사총무 담당자들의 만남                                                                    |
| 40 | 함께 가는 길 | ‘나눔세아’ 캠페인                                                                       |

|                  |    |             |                |
|------------------|----|-------------|----------------|
| SeAH Interaction | 44 | 도란도란 우리가족   | 신혼부부의 수제 와인 체험 |
|                  | 48 | SeAH News   |                |
|                  | 49 | People News |                |
|                  | 50 | Post Box    |                |





##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쏟아같은 시간은 어느덧 우리를 2016년의 끄트머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초의 설렘과 희망 어린 계획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다는 아쉬운 마음  
잘 해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도 남습니다.

올해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에 바쁜 나머지  
직장 동료의 표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처 기회가 없어서, 말 꺼내기가 쑥스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의 인사를 미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속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댈 수 있는 어깨와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사람에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든 길을 동행해 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말없이 가르침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스스로 산타클로스가 되어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 타인을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해 더 큰 희망을 함께 그려보세요.

‘때문에’라는 후회와 원망, 불만이 아니라  
‘덕분에’라는 감사와 겸허의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Profile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신문인 <연세춘추>의 편집국장을 지냈고, <뿌리깊은 나무>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는 1984년과 1990년에 중앙일보특종상을 수상한 바 있다. CBS 라디오 <고도원, 이효연의 행복을 찾습니다>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고도원의 아침편지>의 주인장이자 아침편지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매일 아침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의 아침편지를 모아 <고도원의 아침편지 1, 2, 3>, <어린이에게 띄우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등의 책을 펴냈고, 이외에도 <고도원의 따뜻한 이야기 아흔아홉 가지>, <뭇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1, 2> 등의 저서가 있다.

# 감사와 겸허는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만능열쇠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

바쁜 일상에 매몰된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잊은 채 살아간다.  
쑥스럽고 어색한 나머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해진 우리들에게 고도원 이사장은 말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되도록 자주 건네라고. 감사의 표현과 겸허한 자세는  
메마른 감성을, 무미건조한 일상을 바꿔주는 만능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감사와 겸허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일은 무언가를 짓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밥을 짓고, 집을 짓고, 글을 짓고 인생을 지으며 살아가지요. 짓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거나 조금씩 새롭게 발전해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지을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집이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설계부터 터 닦기, 골조 세우기,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는 일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집이 완성되지요.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독단으로 집을 짓거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뻘뻘어진 집, 재난에 쉽게 허물어지는 집이 지어집니다. 반면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합쳐졌을 때, 집을 짓는 모든 과정에 감사의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은 집이 나오게 되죠.  
‘당신의 도움 덕분에 설계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당신이 있어 집터를 잘 닦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는 꼭 필요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함께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응원이지요.

저서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라는 만능열쇠를 품고 있으면 닫힌 길도, 무수히 많은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하거나 겸연쩍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가거나 괜히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인사치레라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좋아요.  
일본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감사의 말이 지닌 파동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글에 따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 등 언어에 상관 없이 물의 표면에 동일한 파동을 일으키며, 그 파동은 수많은 표현이 일으키는 파동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뇌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우리 몸이 ‘고맙다’라는 말에 공명을 일으키게 되죠. 하물며 그 말이 진심일 때, 그 울림은 훨씬 커지겠지요.





**각박하고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겸허’는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지지 않을까요?**

요셋말로 금수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부모 잘 만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고 태어난 것을 당연하게 여겨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불행을 탓하며 불행한 삶에 머물지만 그중 몇몇은 위대하게 뛰어오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딛고, 주어진 조건들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이 훗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며 사느냐에 달렸지요.

**물질이 풍족해질수록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편리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문명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편리함과 풍요지요. 그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 그 성찰의 핵심은 지금의 풍요를 있게 해 준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그런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잃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 더 큰 풍요로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 주장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겸허한 자세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겸손과 겸허는 급박한 상황이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양보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쫓구치며 칼날 갈아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조차 자신을 한 단계 낮추는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 합니다.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가는 이기적인 태도와 비교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겸허는 당장에는 손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큰 보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년간 아침편지를 보내면서 감사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인사가 있다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글자의 감사의 표현도 있는가 하면 아침편지를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연을 보내오기도 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놓쳤던 감사를 되찾았다’ 등의 사연을 담은 수많은 답신이 있기에 지난 16년간 힘들어도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었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현하는 방법이나 형식은 무궁무진해요. 다만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 표현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녹아버리게 돼요. 전달되지 않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는 표현, 가장 쉬운 표현이 ‘고맙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을 때는 손편지를 써도 좋고, 적절한 기준 안에서 작은 선물을 건네도 좋아요.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든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기’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으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기는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신 안에 장착되어 중심을 잡을 때, 그다음 발걸음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불만을 지닌 사람, ‘왜 나는 이것 밖에 안될까’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니 자신은 커녕 타인에 대한 감사도 나오지 않죠.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혁명이예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겸허’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세아인들을 위해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철은 딱딱하고 무겁고 차가운 인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철강 업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 없이는 집을 짓기 어렵고, 우주선을 띄울 수도 없으니까요. 세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철을 만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잘 넘어서는가’가 개인의 미래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지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에 멈춰서지 말고 원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는 꼭 필요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응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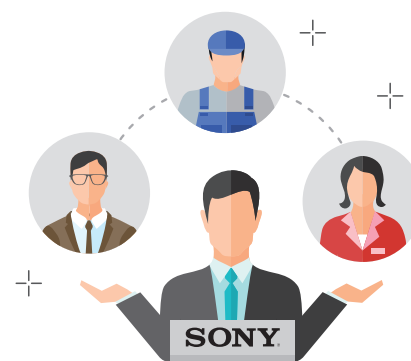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을 통해 배우는 감사와 겸허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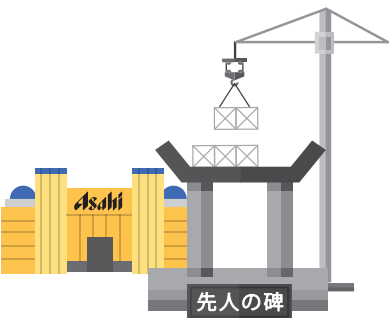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솟아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감사와 겸허의 마음을 갖게 되면 구성원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향한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 기업의 성장을 일군 감사형통의 힘을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본다.

###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고객 S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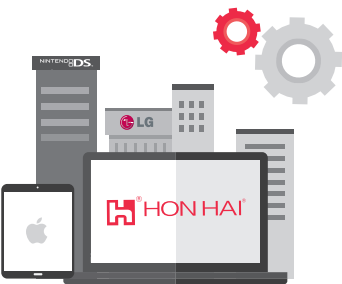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의 관계가 한층 더 각박해졌다. 납품 가격과 시기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등 가혹한 조건에 눈물을 삼키는 회사도 적잖다. 하지만 한쪽만 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눈물을 흘린다면 이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리 없다.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자신 이외는 모두 고객'이라는 이념 하에 남다른 활동을 전개한 기업이 있다. 소니(SONY)이다. 소니에서는 물건을 공급해주는 회사를 '소중한 원재료를 납품해주는 고객'으로 생각한다. 약속한 대로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덕분에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급업체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사내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다음 공정은 '고객'이라는 사고가 극히 자연스레 뿌리내려 있으며, 앞선 공정도 일을 인풋(input)해주는 고객이라는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 상사는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주고 아웃풋(output)을 받아주는 고객, 부하는 인풋을 받아 필요한 아웃풋을 생산해주는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신 이외에는 모두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가 있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누군가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소니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거품경제의 붕괴와 주력 사업이었던 음향기기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겸허의 자세는 창업 70년 된 소니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선배의 비 건립  
아사히 맥주



근면하고 겸허한 동반자 마인드  
혼하이정밀공업



‘사원과 관계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는 것이다’ 회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대하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신뢰를 품게 된다. 자연히 일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사원이 변한다는 것은 곧 회사의 분위기가 변한다는 것. 바람직한 분위기가 확립되면 성과도 자연스레 향상되기 마련이다.

시장 점유율 10%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사히는 1986년 히구치 히로타로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슈퍼 드라이브의 히트로 급성장한다.

“지금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것도 모두 선배들 덕분으로,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다.” 히구치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그는 그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선배의 비’라는 이름의 탑을 세웠다. 아사히 맥주의 발상지에 설립된 이 탑의 오른쪽에는 대리점과 소매점 등의 관계자, 왼쪽에는 선배 직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이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자는 마음가짐을 항상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처나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바람직한 사풍으로 자리매김해 아사히 맥주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아사히 맥주는 2008년 GPTW 재팬(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Japan)이 조사한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에서 5위로 선정됐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4년에 창업자 귀 타이밍이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혼하이정밀공업(이후 혼하이)은 1980년대 PC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구상 거의 모든 PC 생산 브랜드에 들어가는 전체 모듈과 서킷 보드를 제작하게 됐다. 이후 애플의 아이폰과 LG전자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닌텐도 DS, 소니 PS3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면서 혼하이는 위탁생산 업계의 공룡으로 크게 성장한다.

‘평범하면서도 근면한 들소 문화’로 대표되는 겸허한 기업문화는 2004년 위탁생산업체 세계 1위에 올라선 이후 혼하이가 IT 아웃소싱 분야의 선두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고객 제품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다수의 기업 고객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 아울러 혼하이는 해외에도 물류기지와 생산공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단순한 주문 생산을 넘어 고객의 상품 개발 및 유통 단계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번 혼하이와 거래한 업체는 다른 업체로 바꾸기 쉽지 않다. 현재 애플 아이폰의 70%가 혼하이를 거친다. 65%의 아이패드도 혼하이에서 만들어진다.

올해 8월 혼하이는 3,890억 엔을 출자하여 104년 역사의 일본 샤프전자를 손에 넣었다.

기업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  
TNT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된 지역과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책임감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은 창조적인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업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적 물류 기업인 TNT는 2002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 : World Food Program)과 파트너십을 맺고 ‘무빙더월드(Moving The World)’라는 기아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UN 산하기구와 민간 부문이 최초로 맺은 협력 관계이다. TNT는 식량이 남아도는 곳이 있는 반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이유를 식량 자원에 대한 물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TNT는 캠페인을 구상해 WFP에 제안하며 유통업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 사업, Moving the world를 시작했다. TNT의 유통 전문가는 기아 지역을 대상으로 물류센터의 규모, 교통 수단의 종류 및 활용도, 도로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해 건기와 우기별로 차별화된 배송 네트워크망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TNT는 급식 배송 이동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라이베리아의 경우 급식 배송 비용도 20% 감소시켰다.

2003년부터는 전 세계 기아 근절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기금 마련 걷기 대회 ‘워크 더 월드(Walk the World)’를 통해 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 사태 때도 TNT는 사태 직후부터 비상 구호품의 수송 저장창고 건설 등의 활동에서 자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하며 해당 지역의 복구 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TNT는 WFP와 함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현지 신뢰도를 획득함과 동시에 사업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류 업계에서 최우수 실적을 기록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돈을 내주는 고객,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재료나 상품을 공급해주는 협력사,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직장 내 선후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경쟁사와 기업 활동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함께하는 이들과 만족과 감사를 나눌 때, 상호 발전적 관계 속에서 기업 활동도 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덕분에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사는 가치를 실현하는 힘, 감사와 겸허는 기업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이자 지속 성장의 기회임을 기억하자.



## 세아인들이 뽑은 올해의 핫 이슈 2016 세아 10대 뉴스

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환경이 어려웠던 한 해. 그럼에도 세아는 각 계열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철강 선두기업의 위치를 수성하였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한 걸음 진일보한 2016년 세아의 행보. 그중에서 우리 세아인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를 10대 뉴스로 꼽아봅니다.

1

### 세아제강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

세아제강이 11월 미국 휴스턴 OMK 튜브사와 라구나 튜블라사의 자산인수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세아제강은 보호무역에 극복하고 북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인수를 검토해왔다. 이번 인수로 세아제강은 미국 현지에 OCTG 완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한국 강관기업이 됐다.



2

### 세아창원특수강 미래 성장 위한 순조로운 설비 투자 진행

특수 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대를 목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이 진행해온 설비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수합금(Ni-Alloy)과 고급 특수강의 생산 제조 역량을 확충함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은 高 단가, 高 부가가치 강종 판매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무게목 강관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3

### POS-SeAH Steel Wire(Thailand) 상업 생산 가동

세아특수강이 포스코사우스아시아와 합작 설립한 태국의 POS-SeAH Steel Wire(Thailand)가 공장 건설을 마치고 9월 상업 생산에 착수했다. 총 2천 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완공한 태국공장은 1만 200평 부지 규모에 연간 2만 톤 수준의 CHQ Wire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에 따라 세아특수강은 중국 난통, 톈진에 이어 총 3곳의 해외 공급기지를 확보했다.



4

### 세아 FS 글로벌 자동차 회사 대형 수주 성사

세아 FS가 캐나다 마틴리어 사와의 전략적 제휴로 GM 자동차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세아 FS는 GM의 한국, 중국, 폴란드 공장을 통해 연간 52만 대 가량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용 브레이크 연료 모듈을 2019~2025년까지 공급하게 됐다. 한국은 세아 FS의 자회사 우진정공, 중국은 청도법인, 폴란드는 마틴리어사가 공급을 맡는다.







## 5

### 생산성을 높이는 현장의 혁신활동

현장의 다양한 혁신활동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세아제강 포항 공장은 5S 활동을 통해 노후화되고 오염된 설비를 초기 모습으로 복원하는 명소활동을 추진해왔다. 환경 개선은 작업자의 적극적 마인드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물류 흐름과 설비 가동률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세아 ESAB은 고객 관점에서 모든 공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CBS 활동을 펼치며 품질보증체계, 재고 관리, 생산성 향상 등으로 신속한 고객 대응을 실현하고 있다.



## 6

### 세아 L&S 화물 운송 서비스 우수 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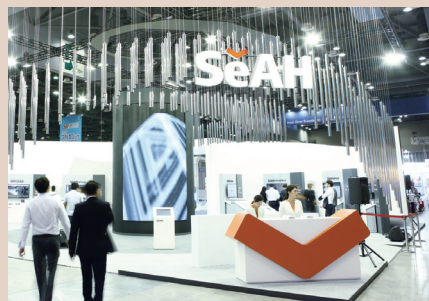
세아 L&S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9차 화물 운송 서비스 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전문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7월에는 인천항 일대에 철강재 전문 하치장 운영을 시작하여 철강재 유통과 물류를 결합한 통합 물류 서비스의 시너지를 한층 확대했다. 세아 L&S는 전문 역량 확충에 힘입어 10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에도 최적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11월에는 무역의 날 1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7

### 국제 전시회 참가로 글로벌 이미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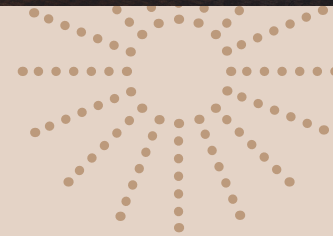
9월 2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6년 국제철강금속산업전이 개최됐다. 세아는 총 8곳의 계열사가 공동 참여하여 'The steel wave'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열었다. 한편 세아제강과 이녹스텍은 4월 4일부터 5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16 Wire & Tube Show에 공동 참가하여 유럽 시장에 스테인리스 강관 메이커로서 이름을 알렸다. 아울러 5월 23~25일 이란 테헤란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2016년 테헤란 한국 우수 상품전에는 세아제강과 세아창원특수강이 함께 참가하여 세아의 우수한 철강 제품들을 선보였다.



## 8

### 세아관 리뉴얼 오픈

세아관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10월 10일 정식 공개됐다. 세아관 리뉴얼은 '철의 올림'을 콘셉트로 세아의 가치가 전하는 깊고 큰 올림을 새겨 넣는 기획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세아관은 주력 사업인 철강업의 특성을 곳곳에 반영하고, 세아의 컬러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사, 핵심가치, 비즈니스 영역,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면서 세아의 본질과 문화를 재조명했다.



## 9

### 재단의 다채로운 활동과 올림의 성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10월 10일 제2회 세아펠로우십을 주관하며 전 세계 다양한 인재들과 유대의 장을 마련했다. 세아이온형문화재단은 3월 17일 예술의전당에서 2016년 정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12일에는 2,000여명 창원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밖에도 학술연구 지원 및 오페라 인재 후원사업을 진전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 10

###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

세아는 올해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새로운 방식의 채용 설명회를 도입했다. 취업 준비생들을 세아타워로 초대하여 기업 설명회를 열고 세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글로벌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편, 최초로 외국인 공채도 진행하며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내 업계 최초 북미 일괄 생산체제 구축

## 세아제강, 북미 유정용 강관 업체 2곳 자산인수

세아제강이 인수합병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공급 과잉으로 국내 강관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 미국 시장 진출

#### 38년 만에 생산 거점 확보

11월, 세아제강이 미국 휴스턴 지역에 위치한 OCTG(유정용 강관)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두 곳의 자산을 인수했다. 유정용 강관은 강관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되며 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된다.

국내 강관 업체가 글로벌 철강사들의 격전지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세아제강은 1978년 8월, SeAH Steel America의 전신인 Pusan Pipe America, Inc로 미주 시장에 진출했지만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아제강이 자산을 인수한 기업은 라구나 튜블라 프로덕트 코퍼레이션(Laguna Tubular Products Corporation)과 OMK 튜브(OMK Tube)로, 두 곳 모두 미국 OCTG 시장 중심가에 위치한 해당 분야 전문 업체이며 각각 멕시코의 Tuberia Laguna와 러시아의 OMK라는 세계적인 모기업들을 두고 있다.

### SSA와 시너지로

#### 시장 리더십 확보할 것

지금까지 세아제강은 포항공장에서 유정용 강관 반제품을 생산해 수출한 뒤 미주 현지 후처리 시설에서 가공을 거쳐 완제품으로 판매해왔다. 호황 때는 주문이 밀려들더라도 현지 후처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제때 납기를 못 맞추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후처리까지 가능한 OCTG 완제품 생산체제를 미국 내에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세아제강은 인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미국 내에 새로운 제조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지 판매법인인 세아스틸아메리카(SeAH Steel America)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세아제강은 판매법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회복될 에너지용 강관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월등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설 발판 마련

이번 미국 현지 업체 인수는 연일 강화되고 있는 미국 무역장벽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강관은 세아제강 전체 매출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저유가 장기화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크게 줄면서 수출 실적이 주춤했던 상황.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하며 어려움을 증폭시켜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자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세아제강의 미국 내 일괄 생산체제 구축은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인수한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유정용 강관 후처리까지 하게 되면 관세 적용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져, 납기 및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다. “수출 등 무역거래에서는 언제나 예측하기 힘든 위기 요소가 존재합니다. 세아제강은 이 같은 리스크를 늘 존재하는 상수로 판단하고 사전 대응력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자산인수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판매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 원가, 품질 및 납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 협상의 결과물

금번 인수는 오랜 기간 글로벌 수요 시장의 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상 기업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며 이루어낸 성과이다. 세아제강은 북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적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때를 대비해왔다. 이번 자산인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꾸준히 투자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한정된 인원으로 2개 회사의 자산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협상 과정에서 거래 조건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2개 업체의 자산인수에 있어 인수 효과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세아제강은 사전에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해 다방면의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거래 조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멕시코와 러시아의 모기업을 상대로 인수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멕시코의 경우 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존심이 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협의를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강해 협상에 임할 때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자연스레 상호 간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인수 설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앞으로 인수 후 통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수 담당자는 이같이 말하며 ‘1960년도부터 쌓아온 파이프 제조 기술, 1978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쌓아온 영업력, 그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세아의 선후배님들께서 잘 협력하여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공장 인수로 세아제강은 이녹스텍(InoxTech)이 있는 이탈리아와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에 해외 생산법인을 갖게 됐다. 항상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세아제강. 앞으로도 세아제강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OCTG 설비 인수를 통해 미주 지역 에너지용 강관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추위 녹이는 따뜻한 감성과 열정의 무대

##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

12월 19일 저녁,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채우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더했다.

### 크리스마스를 더욱 특별하게 빛내준 따뜻하고 작은 음악회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평범한 송년회 대신, 떠들썩한 술자리 대신 2016년의 연말을 좀더 특별하게 기억에 새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19일 저녁,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은 오페라 명곡 위주로 구성됐으며, 국내 정상급 성악가를 비롯해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오늘은 오랜 지인 분들과 임직원 분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참 설렘했습니다.” 해설을 맡은 박익숙 회장은 음악회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오늘 음악으로 한 마음이 되어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랑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무대

코리아 쿼 오케스트라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L'inverno)을 연주하며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겨울의 풍경을 그리는 듯한 바이올린 선율에 관객들은 이내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곡마다 박의숙 회장의 해설이 더해져 곡의 이해와 몰입을 도왔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 라하영, 김승직, 신현식, 박기훈을 비롯해 소프라노 정혜옥이 차례로 등장해 청교도(I Puritani), 리골레토(Rigoletto), 라 보엠(La Boheme),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 등 유명 오

페라의 대표곡을 열창했다.

소프라노 정혜옥은 테너 신현식, 박기훈과 ‘오, 사랑스러운 그대여(O soave fanciulla)’, ‘산들바람에게 물으면(Chiedi all'aura lusinghiera)’ 등의 명곡을 함께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뽐냈고, 올해 12월 재단의 후원 인재로 새롭게 선발된 소프라노 라하영은 섬세한 감정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운 그 이름(Carno Nome)’을 불렀다. 또한 재단이 후원하는 세 명의 테너, 김승직과 신현식, 박기훈은 오페라 투란도트의 명곡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를 비롯해 다채로운 메들리를 선보이며 이날 공연에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에 다시 무대에 오른 이날 공연의 주인공들은 다 함께 ‘You raise me up’과 ‘White Christmas’를 부르며 관객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 올 한해 수고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음악회

“정신 없이 분주했던 한 해를 오늘 음악회를 통해 단정하게 잘 마무리하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일한 저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관객은 이렇게 말하며 공연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또한 이날 초청된 라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출신이자 현재 국립오페라단 예술자문을 맡고 있는 마시모 관티니(Massimo Guantini)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의 공연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준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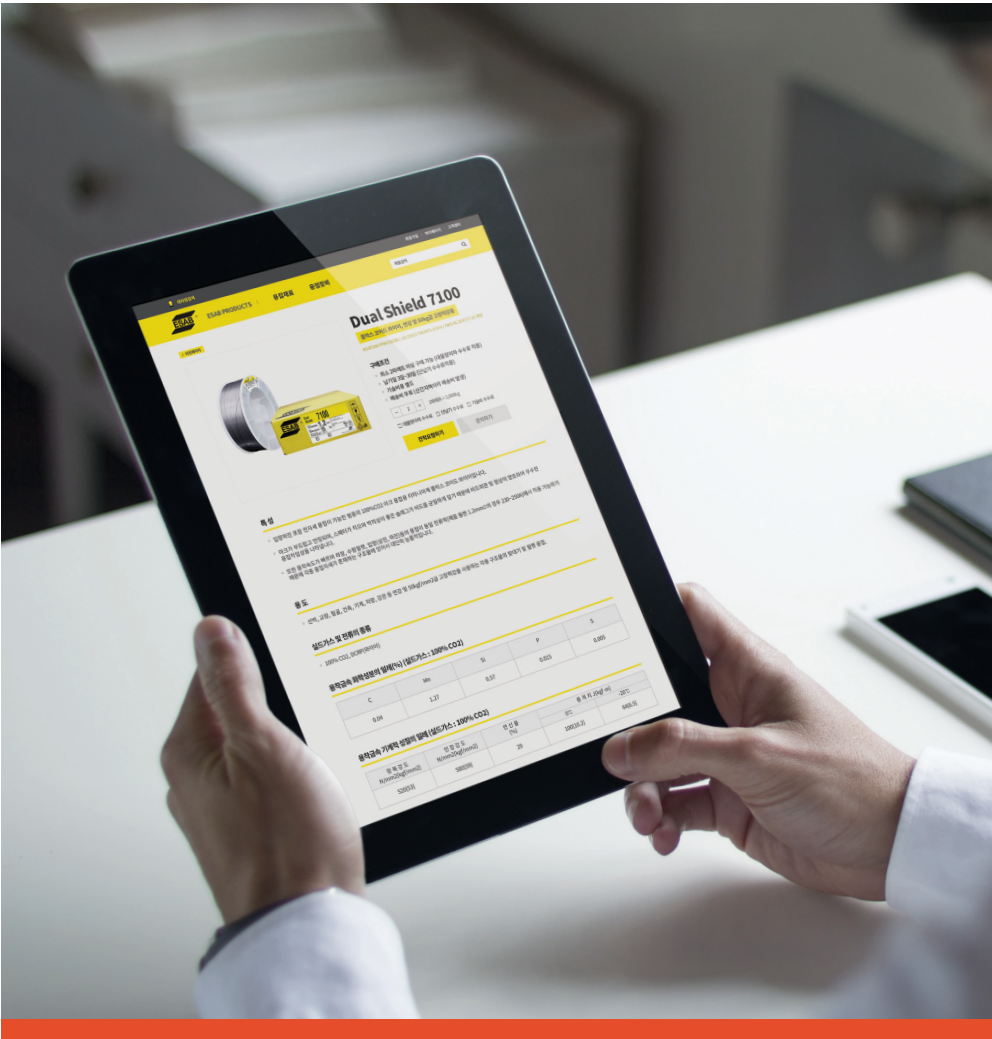
감사하고, 무척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이트처럼 한 해를 살아온 성장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마음에 회한의 바람이 들기도 하는 계절.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음악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 해의 시름도 조금씩 잊을 수 있다. 남은 겨울이 결코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공연이 끝난 후, 이날 행사는 또 하나의 즐거운 축제로 이어졌다. 관객들은 5층 세아 카페로 이동해 사내 밴드 ‘더스탈’과 ‘더스미스’의 흥겨운 음악을 풍성한 만찬과 함께 즐겼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오페라를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음악회 행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세아 ESAB, 업계 최초 온라인 직거래시스템 에샵다이렉트 론칭

쇼핑도, 보험 가입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세아 ESAB이 업계 최초로 용접 재료  
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에샵다이렉트는 인터넷을 통해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용접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쇼핑물.  
그래서 이름도 ‘에샵다이렉트’다.



**최대 30% 저렴하게 용접 재료 판매**  
10월 4일, 세아 ESAB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견적을 확인하고 제품을 주문  
할 수 있는 용접 재료 직거래 시스템 ‘에  
샵다이렉트’를 론칭했다.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해 기존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도  
모하는 한편 신규 고객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판매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에샵다이렉트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가격이다. 시장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  
한 가격에 세아 ESAB의 범용 제품을 구  
입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유  
통 단계를 줄이면서 부가서비스 등에 소  
요되는 판매 관리비가 절감됐기에 가능해  
진 것. 구매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고, 세아 ESAB은 장기 불  
황 속에 가격에 민감해진 구매사의 구매  
욕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에샵다이렉트 바로가기

**세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주문**  
제품 주문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고객이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로 구매  
요청을 하거나 발주서를 발송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고객이 온라인에서 직접  
제품과 희망 배송일을 선택하고, 견적가  
액을 바로 확인 후 주문을 접수할 수 있  
다. 세 번의 클릭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  
뤄질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 또한 특징이다. 온라인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최초 주문 시  
영업사원이 직접 내방해 주문 시연 서비  
스를 제공한다. 제품별로 지정된 표준 주  
문량 이상 주문할 경우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에샵다이렉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은 Dual Shield 7100(플렉스 코어드 와  
이어), SMP-M70(솔리드 와이어), SM-  
6013(피복 아크 용접봉) 등 세 가지 제  
품이며, 외경별로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  
(pallet) 단위로 판매한다. 이외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 대리점으  
로 바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편리한 직거래 서비스 도모할 것**  
에샵다이렉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사업  
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포함한 필수 서  
류를 접수하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시  
스템 개시 한 달 만에 총 10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기존 대리점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의 가입 증가 속도도 빨  
라지고 있다. 세아 ESAB은 내년 초 300  
곳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  
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사용 고객의  
경우 유통 마진 감소에 따른 가격적인 메  
리트에 만족을 표하며 에샵다이렉트를 통  
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제  
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에 대한 직거래 문  
의도 늘고 있다. 세아 ESAB은 다양한 이  
벤트를 통해 에샵다이렉트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편리한 서비  
스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세아의 근간이 되는 가치 감사와 겸허의 기업 정신

치열한 경쟁과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오롯이 철강전문 기업으로 자리잡은 세아.  
이는 창업정신으로부터 계승되어 오늘날 세아의 기업문화의 주류로 자리잡은  
‘감사와 겸허’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



WSTC 교육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그룹경영전략회의

## 창업정신에 녹아있는 감사와 겸허

감사와 겸허는 해암의 삶에 녹아있는 가치였다. 일찍이 기업공개  
를 단행하고 국민기업을 지향한 데에도 책임 있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기업을 성장시킨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성과를 나누겠다는  
는 ‘감사정신’이 기저를 이루었다.

평소 해암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터전을 제공해준 사  
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1992년 명예회장에 추대된 후, 해암은 기업 경영에서 얻은 이익  
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신을 구체화했다. 그해 12월 31일 해암  
은 사재로 출연한 3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하여 해암학술장학재  
단을 설립했다. 해암은 사회 일반의 공익과 국가와 민족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설립 목적으로 밝혔다. 이후 2005  
년 재단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 사업, 교육기관 지업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 기업의 내실을 다져 건설한 경영으로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찰하며 세아가 다진 것은 ‘보다  
감사하고, 보다 겸손해지는 것’이었다. 변화의 속도, 소통 수단의  
변화, 이해그룹의 중첩, 시장의 글로벌 복합성 등 급변하는 비즈  
니스 환경에 적응하려면 교육 커리큘럼 한두 개보다는 모든 교육  
의 강조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세아그룹 태안지역 기름제거 자원봉사



세아베스틸 사랑의 연탄배달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겸허를 세아의 정신으로 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더 강해졌다. 대마  
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좌초할 때,  
세아는 감사와 겸허의 정신을 기본으로 내실을 다지며 인적 구조  
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견실한 경영을 입증해 보였다.  
아울러 세아제강의 삼미종합특수강 스테인리스 공장 인수와 포  
항 24인치 Mill 준공, 군산 컬러강판공장 준공을 통한 판재사업 진  
출 등 세아의 주요 성장과 발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 대를 이어 계승되는 기업가 정신

1995년, 세아는 본격적인 그룹경영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운형 선대 회장은 1월 14일 첫 그룹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회장제  
도입 취지 및 향후 그룹의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 부하를 육  
성하고 부하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룹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며 모든 계열사가 같은 경영철학과  
이념을 갖고, 같은 기업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근본을 잡아먹는 오만, 타성, 눈앞의 경쟁만 보는 근  
시안, 규모에 대한 집착 등 자기 파괴 습관이 무의식 중에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세아가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를 이어 계승되는 감사와 겸허의 기업가 정신은 치열한

경쟁과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세아가 튼튼한 체질을 갖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으며, 세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모든 세아인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 세상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세아는 지난 56년 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기업의 고유 활동을 통해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함  
은 물론, 시민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에  
참여해왔다. 보호시설 청소년 자립 지원, 북한 어린이 돕기, 해외  
재난 구호성금, 소외계층 돕기 등 동포애와 인류애에 바탕을 둔  
기업 활동을 전개했으며, 스포츠 진흥 사업, 문화·예술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했다.  
적극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 격려하기 위하여 ‘세아해암학술  
상’도 제정했다. 2007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금속 관련 과  
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관련 연구 분야에  
서 저술이나 논문 게재, 제반 학술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  
를 포상하여 격려하는 내용의 ‘세아해암학술상’을 제정, 11월 4일  
제 1회 시상식을 가졌다.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민족기업의 터전을 닦고 고객 중심의 가치  
를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온 56년 역사.  
세아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의 가치를 향해 여전히 감사  
와 겸허의 기업상(像)을 다듬어가고 있다.





## 사람 중심에 기반한 미래 성장 로드맵 India SeAH Precision Metal Plant Operation Team

2003년, Han Sung Metal Pvt. Ltd라는 사명으로 출발해 이제는 인도 시장에서 튜빙 사이클 부품 제조 분야를 선도하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인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ndia SeAH Precision Metal Plant(이후 인도세아). 그곳 운영팀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글 인도세아 운영팀 품질 매니저 Arun Sharma



### 인도 전역 망라하는 3개 생산 거점

안녕하세요. 인도세아 운영팀 품질 매니저 Arun Sharma입니다. 세아가족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도세아는 델리 국립수도 지역의 동쪽 외곽에 위치한 위성도시, 노이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회사들이 밀집해 있으며 쇼핑몰, 골프장, 산업단지 등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세아는 삼성, LG, Subros와 같은 대형가전 및 에어컨 제조기업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남부 최대 도시인 첸나이, 서부 상업 교역 중심지인 푸네에도 인도세아의 공장이 있습니다. 인도세아는 세 곳의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인도 전역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납기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책임 업무 시스템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인도세아는 인도 시장에서 에어컨 및 냉장고의 튜빙 사이클 부품 제조 공급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이다 공장에는 현재 주재원과 스태프, 현장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총 2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저희 운영팀은 스태프 20명, 현장 직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이다 공장 운영팀은 주요 역할과 책임에 따라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업무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결정, 개발 기간 단축, 적절한 재고 및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입니다.

노이다 공장 운영팀 팀장인 Satish Walia는 2006년부터 인도세아에 근무하고 있으며, 팀원들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판매 계획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 매니저로서 고객지원 및 고객만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근무한 생산 매니저 Indapal Sharma는 기획 및 조직 업무와 생산 스케줄 작성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부터 Ambrish Tiwari가 개발 책임자로서 신규 샘플 개발 업무를, 올해 입사한 Manoj Kumar가 유지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혁신, 품질, 고객 서비스로 경쟁력 높여**

인도세아 운영팀에서는 고객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최상의 파트너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인도세아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 시장 내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향상, 구매자의 만족을 높이는 고객 서비스에 주력함으로써 인도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세아의 성장률은 인도 전체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 및 새로운 부품 개발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더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세아는 가정용 에어컨에서 상업용 에어컨과 덕트 분야로 생산 업무의 영역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비롯하여 운영 인건비와 하위 부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인사 대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세아에서는 직원 워크숍을 비롯하여 구성원 간의 화합과 리더십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 왔습니다. 굿 모닝, 굿 이브닝(Good Morning, Good Evening)이라는 말 대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I Respect You)’라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성과는 조직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가 하면, 직원 존중 및 전문 기술과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도 ‘Man is main’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3P (People, Productivity, Profitability: 인재, 생산성, 수익성)에 근거한 경영 전략을 내세워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평생 세아와 함께하겠다는 사명감**

지난해 인도세아 노이다 공장의 매출은 5억 2천만 루피(한화 약 90억 원). 올해는 약 7억 4천만 루피(127억 2,800만 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도의 경제 성장 전망 및 수요 증가세에 비추어 2020년에는 약 14억 루피(약 240억 원) 판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팀에서는 2020년까지 세부적인 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신규 고객사에 자동차 튜빙 사이클 부품 공급을 시작하며, Subros 사에 공급할 에어컨 튜빙 부품도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각 해마다 신규



수주 대상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했으며, 수주 계획에 맞춰 프로세스 최적화 및 생산 프로세스 검토, 자동화 구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와 수요 예측을 통해 신제품 개발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품질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사업 영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인도세아가 추구하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또한 운영팀의 목표는 인도 시장에서 세아의 이름을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팀에서는 구성원 및 고객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법인 영업 프로모션에도 더욱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세아와 평생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계획한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인도세아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쇠를 깎아낸 사람들

## 세아세스틸 군산공장 Hot Scarfing TF팀

각고(刻苦)의 노력이라는 말에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쓴다는 의미이다. 불철주야 고민을 거듭하며 목표한 바를 달성해낸 이들.

세아세스틸 군산공장 Hot Scarfing TF 팀원들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다.

###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거칠거나 주름진 피부를 한 겹 벗겨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Hot Scarfing(이후 핫 스카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태욱 팀장이 낯선 철강 용어를 건어내고 쉽게 풀어 설명한다. 대형압연 공정을 거쳐 나오는 제품과 소재 표면에는 굼힘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있거나 충분히 탈락되지 않은 개재물이 잔존한다. 표면 품질이 양호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를 제거하는 용삭 과정, 산소와 LPG를 분사하여 3,000℃의 고온으로 제품 및 소재의 표면을 0.7~1.23mm까지 깎아내는 일이 바로 핫 스카핑이다.

대형압연에서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환봉과 각재의 완제품 외에도 소형압연에 공급되는 소재를 생산한다. 이중 기존에는 고객 판매용 제품에만 핫 스카핑이 적용됐다. 소재 쪽에는 이송 라인 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품질 경쟁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소재에 대한 핫 스카핑 확대 적용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장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품질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제품은 물론 소재의 표면 품질도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목표 향해 하나되어 정진한 결과

2014년 2월 핫 스카핑 설비 합리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됐다. 강태욱 팀장을 비롯해 압연설비팀의 신용무 과장, 대형압연팀 압연파트의 양인규 대리와 송만석 기장, 공정연구센터 동현우 대리가 한 팀으로 뭉쳤다. 같은 해 6월에는 김선조 대리가 압연설비팀으로 부서를 옮기며 이 팀에 합류했다.

1년 남짓, 팀원 모두가 각자의 파트에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지난해 3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초 신년회의에서는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도 받았다.

“현장에서 늘 큰 도움을 주신 조광명, 서명호 기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서 이동을 하자마자 큰 프로젝트를 맡아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다는 김선조 대리. 설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그에게 현장의 도움은 절실한 만큼 고마운 것이었다. 세아업적상을 받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자부심, 성취감과 긍지는 여전히 달고 값지다.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거둘 수 있었던 소중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 신규 투자 대신 설비 변경으로 비용 절감

처음엔 회사 차원에서 신규 설비 투자가 검토됐다. 하지만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됐다. 소재용 핫 스카핑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설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수정됐다. TF팀은 기존 설비 사이에 롤러 테이블과 Transfer Car를 설치하여 제품 공정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라인이 소재 라인으로도 전환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변경했다. 직진으로만 움직일 수 있던 작업 라인에서 유턴이 허용되도록 설비 시스템을 개선한 것. 이렇게 신규 투자 대신 기존 설비를 개선하면서 6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절감됐다. 소재 표면 결함이 개선되며 후공정에서 깎거나 다듬어내야 하는 부분이 적어진 만큼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제품과 소재를 포함해 전체적인 품질 개선으로 거두게 된 비용만 해도 12억 원 가량.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으니 이에 따른 매출 증대도 기대해볼 만하다. 뿐만 아니다. 경쟁사 대비 품질 우위 확보,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구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무형 효과도 크고 값지다.

### 노후화된 설비 안정화가 관건

과연 비좁은 기존 라인 사이에 롤러 테이블이 들어설 수 있을까? 강태욱 팀장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설비 간섭 부위와 소재를 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설계를 도면화



하고 개선안을 구체화할수록 그의 의구심은 가능성으로, 가능성은 다시 확신으로 바뀌었다.

설비 설치를 위해 하기 휴가도 반납했지만 주야로 작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랐다. 생산이 진행되는 와중에 설비 설치 작업을 병행하려니 공정 조율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워낙 노후화된 설비라서 핫 스카핑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산소와 LPG 가스 분사량이 들쭉날쭉하여 조정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현장 직원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 표면 품질에 편차가 발생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좌절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용무 과장은 당시의 고충을 이렇게 회고한다.

노후화된 설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인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팀원들은 설비의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 개선해나갔다. 산소와 LPG를 고르게 분사할 수 있도록 분사구의 간격과 크기를 균일하게 조정하고, 정밀한 압력 조율이 가능한 디지털 압력계도 들여놨다. 사전에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세부 설비의 문제점도 발견했다. 제품과 소재를 양 끝에서 꼭 죄어 잡아주는 UNIT 설비의 밀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제품과 소재 전체가 균일하게 예열되면서 핫 스카핑 품질의 편차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노력은 계속될 것

“아직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차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강태욱 팀장. 그는 향후 유해 결함이 많은 강종을 새롭게 발굴해 핫 스카핑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양인규 대리도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압연설비팀에서는 프로젝트 완수 후에도 작업 과정을 매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설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연구센터에서도 품질의 정합성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테스트가 필요할 때는 현장에 꼭 나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정연구센터 동현우 대리가 말하는 그의 업무 비결. 신용무 과장도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철을 깎아내는 기술과 혁신 뒤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음을. 문제 해결을 위한 꼼꼼한 관찰, 거듭된 고민과 다짐, 실패와 좌절을 무릅쓴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을. 핫 스카핑 TF 팀원들이 그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인사총무 담당자들의 만남



인사총무 담당자의 업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매달 급여 지급을 비롯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즐거운 연말 회식 자리를 위해 장소를 물색하는 일까지 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  
회사의 살림을 살뜰히 꾸려가는 인사총무 담당자들을 만나본다.

### 세아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맡고 계신 업무는?

**세아 ESAB 인사총무팀 진승래 대리(이하 진)** 2011년에 입사하여 신입·경력 채용 등 인사 및 교육 업무와 급여 지급, 복리후생을 비롯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재홍 사원(이하 김)** 2015년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회사 전체의 활동에 합리성을 추구하며 보다 효율적,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사총무 업무입니다. 주로 직원 채용 및 평가, 경력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인재개발팀 이해진 사원(이하 이)** 올해 2월에 입사하여 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지원해주는 총무 업무와 경제적, 정신적 복리후생을 책임지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사총무 업무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진** 대부분의 인사총무팀 업무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장 직원을 포함하여 사우들이 개별적인 서류 발급을 자주 요청하죠. 회사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은 업무일

수 있지만, 사우들 개개인에게는 매우 시급한 서류일 수 있으므로 바쁜 업무 중간중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소소하게 챙길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 분들에게 합격 기원 찹쌀떡과 엽을 챙겨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김** 인사총무 업무는 본질적으로 공평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원들 각각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따금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반면에 회식, 워크숍 등의 행사 후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럴 때면 그간에 느꼈던 어려움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아직 업무 경험이 적어서 회사 내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냥 흘리듯 말씀하시는 것과 꼭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별해내야 하거든요.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땐 다른 팀원들에게 수시로 의견을 구하는 편이에요. 현업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일의 경우, 더러 제가 일을 지시한다고 오해하실까 염려되기도 해요. 기한 마감감이 지체되지 않으려면 현업 부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는?

**진** 원칙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 회사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요구사항이 있으면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일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구분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 놓는 것입니다. 가령, 인사 발령과 같은 한 가지 사항으로도 수정해야 하는 파생 업무가 다수 발생합니다. 매달 변경 사항을 메모해 놓고 업무 하나씩 체크하면서 처리해야 누락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세아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진** 작년 회사의 30주년 창립 기념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행사라서 여느 해 창립 기념 행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행사가 잘 끝나고 수고했다는 격려를 받았을 때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김** 지난 9월 말, 국제철강금속산업전에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로 참가했습니다. 관람객을 응대하고 계열사 담당자들과 함께 그룹 업무 지원에 협조하면서 내가 맡은 업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출장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정립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맡은 큰 업무였고, 무언가 하나의 기준을 정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주무님과 함께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일부 직원에게만 주어진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해당 기준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도 제 마음속에 판단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업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평소 꼼꼼히 살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팀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 세아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 좀더 전문적인 인사총무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통달할 수 있도록 노동법, 인사관리 등 업무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김** 일본의 코이 비단잉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는 코이 비단잉어는 일반적인 어항에서는 10cm 정도까지 자라지만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몸집이 1m 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떤 환경에서든 그 상황에 알맞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아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여 더욱 전문적인 업무 담당자로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세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 세아인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 드려요.

**진**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지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다 함께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계획한 목표를 정리하며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남은 한 해 잘 계획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를 잘 처리한 후에는 해당 지역 출장에 대한 업무 혼선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 인사총무 업무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나 원칙은?

**진**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소 현장 분위기도 가족적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 인사총무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자세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 새로 산 자신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며 아끼듯 회사에 애정을 갖는 것, 모든 업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임할수록 직원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겸허는 함께 웃으며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셈이죠.



우리가 함께 만들 기적

동훈이를 위한 ‘나눔세아’ 캠페인



나눔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씨앗.  
세아가 두 번째 ‘나눔세아’ 캠페인을 통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 그룹사 임직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홀트에서 만난 아이, 동훈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계절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요. 무더운 날엔 덥지 않도록, 쌀쌀한 겨울엔 춥지 않도록 엄마가 늘 보살펴 주니까요. 한 아이가 합정동 홀트의원에 들어섭니다. 위탁 어머니 품에서 아이는 곧히 잠들어 있습니다. 뽀근뽀근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리지만, 아이의 작은 코에는 길고 가는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동훈이(가명). 동훈이는 올해 1월, 2.8kg으로 태어나 이내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졌습니다. 친모 대신 전미정 위탁모가 동훈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갑상선 기능 저하와 설소대 단축증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갑상선 이상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었고, 설소대 단축증 수술도 잘 됐다고 합니다.

**머리에 물이 차는 병, 수두증**  
지난 7월, 전미정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자라던 동훈이가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달려간 병원에서 동훈이는 수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뇌를 압박하는 병. 수두증으로 아이의 머리는 심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동훈이는 대학병원에서 뇌실측로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 안에 호스를 넣어 뇌척수액을 복부로 빼낼 수 있게 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힘든 수술인데 동훈이가 잘 견뎌줬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한 달, 총 두 달간의 입원도 잘 버텼죠.”  
당시를 떠올리며 전미정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우는 아이 곁에서 어머니는 내내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부디 동훈이가 무사히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입 대신 코로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  
간절한 바람과 달리 동훈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보통의 아이들처럼 젖병으로 분유를 먹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동훈이의 코에서 위까지 또 하나의 호스가 연결됐습니다. 입 대신 코를 통해 수유를 하는 경관 식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원 중 흡인성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동훈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훈이의 정확한 병명은 수두증, 흡인성 폐렴, 발달성 장애, 부정맥, 경련,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 가지 병만으로도 괴로울 텐데 아직 채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가늠하기만 합니다.







### 꾸준한 치료와 섬세한 간병이 필요해요

동훈이는 매일 세 가지 이상의 경련 조절약과 갑상선 약을 복용합니다. 한참 말을 배우며 방긋방긋 웃어야 할 아이가 약 기운에 지쳐 내내 잠을 잡니다. 특히 동훈이의 경련성 질환은 위낙 중증이라 간질 치료제를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훈이는 매달 홀트의원에서 발달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압 상승 등으로 신체 및 지능 발달이 늦고, 뇌 위축으로 생기는 경련에 대한 약물 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니 근골격계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꾸준히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동훈이는 어른들이 알려주면 크게 입을 벌려 함박웃음을 짓는 강한 아이입니다. ‘동훈아’ 하고 부르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눈으로 제 이름을 부른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아이. 말간 얼굴로 활짝 웃는 동훈이의 모습을 보면 되려 마음이 편해져 전미정 어머니는 자꾸만 눈물이 앞섭니다.

### 갑작스런 또 한 번의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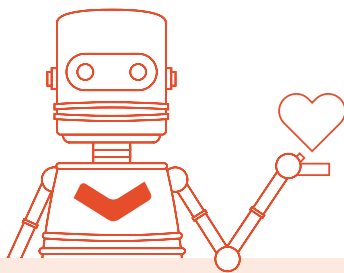
지난 12월 5일, 동훈이는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압이 갑작스레 올라가 왼쪽 뇌에 출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머리 안에 넣은 호수가 막힐 수 있어서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습

니다. 두 시간이 넘는 수술이었지만 동훈이는 잘 견뎌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동훈이가 자라면서 호스의 길이가 신체에 비해 짧아질 경우, 그때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홀트의원원의 공주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마를 익히는 것,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가는 것, 무럭무럭 자라 힘껏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배우는 것.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그 당연한 행복이 동훈이에게는 그저 꿈일 뿐. 오히려 성장이 동훈이에게는 ‘또 다른 수술’이라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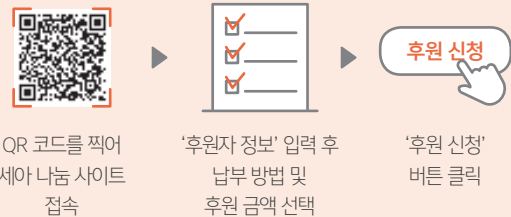
“모든 아이들이 관심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동훈이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예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아픈 몸 때문에 아직 입양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홀트아동복지회 이운주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너무 많은 장애로 인해 일반 가정에 입양되기 어려운 동훈이는 평생을 장애인 시설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치료에 쓰일 비용도 걱정입니다. 첫 뇌실측로술 수술에서 치료비, 간병비, 약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7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동훈이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주복도 필요하고, 유모차도 바꿔주고 싶어요.” 동훈이에게 필요한 것을 묻자 전미정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에서 뇌척수액을 빼내야 하는 동훈이에게는 상하의로 나뉜 일반 유아복보다 위아래가 연결된 우주복이 훨씬 요긴합니다. 경기를 일으키거나 경관 식이 호스가 빠져 한밤중에도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일이 잦은데, 그런 동훈이에게 현재의 유모차는 너무 작고 낡았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아이에게 덜컹거리는 낡은 유모차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전미정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곧 동훈이의 돌이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동훈이가 아픔과 치료를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운주 선생님은 간곡한 바람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동훈이가 꼭 완쾌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 유독 많이 아팠고 그 아픔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동훈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사랑을 담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 ‘나눔세아’ 동훈이 수술비 후원 방법

#### QR코드 후원



\* 기부금 영수증은 2017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지정 계좌 후원 시, 보내는 이 앞에 ‘세아’를 꼭 붙여주시기 바라며 영수증 발급은 홀트(02-331-7073)로 문의해주세요.

#### 지정 계좌로 후원

SC제일은행 302-20-248673  
(사)홀트아동복지회 계좌로 직접 송금



세아 나눔 사이트 바로가기





## 깊어가는 사랑의 향기 신혼부부의 수제 와인 체험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금방이라도 꿀물이 똑똑 떨어질 것만 같다. 웃이며 머리 모양새를 매만져주는 손길도 다정하기 그지없다. 결혼 3개월차 신혼부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홍성인 대리와 아내 박수인 씨가 수제 와인 체험에 나섰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홍성인** 대리 부부



###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평소 둘 다 와인을 즐겨 마셔요. 와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도 마실 때마다 특별한 기분을 선사해 주거든요.”

홍성인 대리가 체험 참가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직접 만드는 와인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차분함 속에 엉뚱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홍성인 대리와 귀여운 인상에 활발한 성격을 지닌 수인 씨는 언뜻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 두 사람은 7년 연애 끝에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다. 작곡을 전공한 홍성인 대리가 직접 작곡한 곡을 발표하는 공연에 수인 씨를 연주자로 섭외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연 연습을 하며 차츰 가까워졌다. 이전부터 호감을 느꼈던 수인 씨에게 다가가기 위한 섭외였다는 것은 연인이 된 후에야 밝혀진 사실.

“맛있는 걸 자주 사주기도 하고, 제가 혼자 있는 연습실에 자주 찾아와 본인이 작곡한 곡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같이 작업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저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면서 진지하게 만나게 됐죠.”

이제는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수인 씨가 웃으며 말한다.

### 각기 다른 매력의 와인 시음

“이제부터 와인을 종류별로 맛보실 겁니다. 천천히 즐기시면서 어떤 게 가장 맛이 좋은지 기억해 두세요. 바로 그걸로 와인을 만들 거니까요.”

이날 체험 지도에 나선 셀프와인 청담점의 이혜숙 대표가 능숙한 솜씨로 갖가지 와인을 잔에 따른다. 처음 맛본 것은 아이스와인. 수확을 늦춘 포도는 바깥에서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하면서 당도가 높아지는데, 바로 그 당분이 농축된 포도로 만든 디저트 와인이다. 두 번째는 레드 아이스 와인. 와인은 눈으로도 맛을 보는 것이라더니 글라스에 찰랑이는 빛깔이 가히 예술이다.

“색이 정말 예쁘네!” “정말 달콤하다.”

부부는 감탄사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와인을 나눠 마셔본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산 까베르네 소비뇽을 연달아 맛본다. 둘 다 같은 레드 와인이지만 포도 품종의 차이로 인해 이탈리아산 와인이 허를 꼭 놀려주는 듯한 드라이한 느낌이 좀더 강하다. 산뜻한 맛의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까지 차례로 시음해본 두 사람. 각각의 와인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중 딱 하나만 고른다는 게 쉽지 않다. 망설임 끝에 부부는 아이스와인을 만들기로 마음을 정한다.

### 부부의 호흡과 사랑이 담긴 와인

와인 만들기는 벤토나이트 가루를 녹이는 일부부터 시작됐다. 벤토나이트는 화산재에서 얻은 성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 껍질, 씨 등의 부유물을 침전시키는 작용을 한다. 찬물에 잘 안 녹는 데다 쉽게 멍치므로 따뜻한 물에 가루를 살살 뿌려가며 풀어준다. 이제 여기에 포도 원액을 부을 차례. 남편이 앞에서 들고 아내가 뒤에서 거들며 원액을 발효통 안으로 팔팔 붓는다.





“자, 이제 포도 원액을 바닥까지 잘 저어주세요.”

포도 원액과 물을 한 데 넣고 힘껏 저어 비중을 맞춰주는 것은 와인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잘 저을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발효가 잘 되기 때문이다. 15분 가량이나 강하게 원액을 저어주어야 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미 시음으로 여러 잔의 와인을 마신 탓에 레드 와인 색이 된 홍성인 대리의 얼굴이 한 층 더 붉어진다.

그 다음으로 비중계를 사용해 벤토나이트와 섞인 포도 원액의 당도를 확인해 본다. 염도가 높은 사해에서는 헤엄치지 않아도 몸이 물에 뜨듯이, 포도 원액에 담긴 비중계가 등실 떠오른다.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뜻이다.

고생 끝에 드디어 효모 투입. 수인 씨가 효모 가루로 포도 원액 위에 하트를 그려 넣는다. 어쩐지 와인이 더 달콤해질 것만 같다. 이윽고 뚜껑을 덮은 통을 밀고 안쪽 발효실로 이동한 두 사람. 이곳에서 5~7일간 발효된 후 침전물을 거르고 산화와 발효를 중지시키는 단계 등을 거쳐 약 4주 후 부부만의 와인이 완성되는 것이다.

#### 결혼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 손으로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책임감이 강한 수인 씨는 손재주도 좋은 편이다. 캘리그라피와 드라이플라워 데코레이션도 따로 배울 만큼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런 수인 씨에게 홍성인 대리는 ‘어느 하나 모자람 없는 완벽한 남편’이다. 워낙 마음이 착해 잘 다투지도 않고, 학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수인 씨를 위해 집안일도 성실히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남편이라고.

예식장에서 30분마다 찍어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은 직접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불필요한 허례허식도, 주례도 없는 결혼식이었다. 드레스와 턱시도 업체를 알아보는 일부터 웨딩 촬영까지 모든 결혼 절차가 두 사람의 손을 거쳐 진행됐다. 결혼식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음악을 전공한 부부답게 야외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음악도 신경써서 선곡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다’고 입을 모은다. 부부로서의 두 사람이 온전히 갖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이다.



#### 눈빛 속에 오가는 사랑의 맹세

마지막으로 와인 병을 특별하게 꾸미는 순서. 병에 붙일 라벨에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 부부의 모습을 담았다.

“결혼식 때 따로 웨딩 촬영을 안 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체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수제 와인 체험을 마친 후, 수인 씨는 이렇게 말했다. 홍성인 대리도 ‘잘 몰랐던 와인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한다. 늘 아내를 웃게 해주는 남편이 되고 싶다는 홍성인 대리. 수인 씨도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 약속한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내가 될 것’을 다짐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향기를 머금은 와인처럼,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다. 혹여 치열한 일상 속에 쌓이는 침전물이 있다면 다시 맑게 걸러내면 그만이다.

마주앉아 와인 잔을 부딪히는 부부. 서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고. 주고받는 눈빛 속에 행복한 약속이 오고 간다.



<촬영 협조> 셀프와인 청담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8길 6 T. 02-544-7551





**그룹뉴스**

故 이운형 회장, 문화예술발전 보관문화훈장 수훈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오페라의 질적 도약과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故 이운형 회장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등 5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훈자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이 가족 대표로 참석하여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세아는 앞으로도 오페라 인재 지원 등 문화예술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세아특수강**

‘사랑 담은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봉사

지난 11월,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임직원 50여 명은 매주 월요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 담은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에 참여해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직십자사와 포항철강공단, KBS포항방송국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세아특수강 임직원들은 한 달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간식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세아베스틸**

2016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

11월 2일, 세아베스틸은 ‘2016 희망나눔 장학금’을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전달했다. 금번 선정된 장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15명이며,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15명에게는 인당 70만 원씩 총 2년간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매년 군산시와 창녕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해 왔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세아 L&S**

무역의 날 ‘1백만 불 탭’ 수상

12월 5일, 세아 L&S는 ‘제 5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백만 불 탭’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아 L&S는 올해에만 중동 지역에 라인 파이프, LPI 파이프, 파이프 피팅 부속품 등 16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세아 L&S는 첫 ‘1백만 불 탭’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세아창원특수강**

친환경경영 표창

지난 11월, 세아창원특수강 안전환경팀의 정재두 과장과 최성민 대리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경남도지사상을 받았다. 정재두 과장은 황산,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최성민 대리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15개사 중 미세먼지 저감 2위를 달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우수 표창장’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세밀한 관리로 법규 준수뿐 아니라 친환경 경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말했다.



**세아 M&S**

2017년 사업계획 확정 워크숍

11월 23일, 세아 M&S는 여수공장에서 2017년 사업계획 확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작년이 턴 어라운드 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안정적 수익을 내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세아 M&S는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원가 경쟁력 확보, 맨 파워(Man Power) 제고, R&D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의 3가지 사항을 중점 전략으로 내세우며 2017년 영업이익 100억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아홀딩스**

출산  
문유석 감사파트  
김현석 경영지원파트

**세아제강**

입사  
배정미 포항 설비기술팀  
권은지 군산 업무지원팀  
김승현 군산 품질경영팀

결혼  
이현구 창원 업무지원팀  
황인웅 구매2팀  
이병준 포항 업무지원팀  
김승현 군산 품질경영팀  
방시현 포항 물류팀  
김태우 포항 생산3팀

출산  
심재훈 군산 생산팀  
이영빈 포항 SAW포장반

조의  
강정환 군산 업무지원팀(부친)  
권병욱 포항 생산2팀(부친)  
장정택 포항 생산1팀(빙모)  
박세근 군산 품질경영팀(부친)  
김상해 포항 생산2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송하성 품질보증팀  
김권영 단조생산팀  
강다형 공정연구센터  
김기범 고객기술지원센터  
변용모 대형압연팀 정정파트  
김민석 소형압연팀  
정현구 제강설비팀

조의  
이용희 2차가공팀(부친)  
박연규 제강팀(모친)  
서영철 대형압연팀(빙부)

정영수 연주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김성순 품질보증팀  
김수택 부산영업1팀  
배신우 압연팀  
김현택 생산관리팀  
하환중 강관단조설비팀  
최성빈 강관단조팀  
정필규 구매1팀  
오세진 압연팀

출산  
문은주 마케팅팀  
정현천 생산관리팀  
정재욱 품질보증팀  
전현욱 압연설비팀  
이승욱 제품연구1그룹  
이만희 생산관리팀  
김재환 가공팀

조의  
김육환 제강팀(모친)  
신경수 강관단조팀(모친)  
임석호 가공팀(빙모)  
박중식 가공팀(빙모)  
남기문 강관단조설비팀(빙부)  
강기원 제강팀(빙부)  
최영철 제강팀(빙부)  
박홍일 강관단조설비팀(부친)

**세아특수강**

결혼  
임동명 서울 경영기획팀  
김효미 포항 물류자재팀

조의  
전주병 서울 영업본부(모친)  
장준영 충주 생산팀(빙모)  
손동원 포항 생산팀(모친)  
김국현 포항 생산팀(빙모)

**세아 FS**

결혼  
최영민 경영관리팀  
서정탁 자동차개발팀  
조운성 생산팀

출산  
이수원 가전영업팀  
김선용 제조기술팀  
김성식 생산팀

조의  
박재근 생산팀(빙부)

**세아 ESAB**

결혼  
박성규 제품개발팀  
양재봉 생산팀

출산  
김성동 조선영업본사팀

조의  
진순용 생산팀  
임희대 제품개발팀(빙모)

**세아메탈**

결혼  
김재혁 창원 품질혁신팀  
승상일 원주 생산설비팀

조의  
김정호 원주 생산설비팀(부친)

**세아 M&S**

입사  
김광호 영업팀  
김영욱 기술연구소

출산  
강경태 생산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김신애 개발2팀

결혼  
오성남 개발1팀

출산  
손기영 개발1팀

조의  
정제중 생산팀(빙부)

**세아 L&S**

입사  
이윤영 총주영업소

결혼  
이창욱 포항운영팀

조의  
박보아 재경기획팀(모친)



## Post Box 독자참여

###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행복 레시피 코너에 소개된 핫감자 갈치조림을 보고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아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세아가족> 덕분에 가족들 앞에서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흐뭇한 내용의 사보 기사들 기대하겠습니다.

채라운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임을 테마 칼럼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세아의 원동력이 바로 주인의식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세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김종근

<세아가족> 고맙게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보를 읽다 보면 과거 세아제강에서 동료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직도 변함없는 그리고 한결같은 동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런 후배님들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최종승

리우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 선수의 인터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연습 또 연습으로 일궈낸 금메달이기에 더욱 값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세아 가족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아 가족 파이팅! 전유진

매 호마다 다른 주제로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소개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조만간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번 호에 소개된 천진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사업장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솜

세아창원특수강 글로벌마케팅2파트의 안현호 대리 와 두 자녀의 과수원 체험기를 잘 읽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자연이 선사하는 신비와 혜택을 자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만큼 소중한 산교육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 자연에 대한 세대 간 약속과 공감의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전경욱

#### <세아가족> 사보기자

고은비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김유현 세아 FS 인사팀(서울)

장소라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윤서연 세아 FS 업무지원팀(광주)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 Quiz

<세아가족> 11+12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채라운 전남 여수시 여서로

김종근 경북 포항시 양학로

최종승 서울 강남구 논현로

전유진 경남 창원시 반계로

정다솜 경기도 평택시 지산천로

전경욱 충북 충주시 동수1길

**Q1** 세아 ESAB이 업계 최초로 시작한 용접 재료 온라인 직거래시스템의 이름은?

- 에샵닷컴
- 에샵다이렉트
- 온라인에샵
- 에샵몰

**Q2** 지난 11월, 세아제강이 인수한 OCTG(유정용 강관)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두 곳은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을까요?

- 멕시코
- 러시아
- 미국
- 중국

**Q3** 포도의 수확을 초겨울까지 늦춰 당분을 농축시킨 디저트 와인을 일컫는 말은?

- 아이스와인
- 까베르네 쇼비농
- 쇼비농 블랑
- 스파클링 와인

####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We are honest*

세아의 올곧은 정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1960년 강관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온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SeAH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특수강 • 세아FS • 세아ESAB •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엔지니어링 • 세아L&S • 세아네트웍스